

동경대학교 활동 보고서

2012-11549 고희곤

이 자리를 빌어 국제교류에 힘을 써주신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관계자 여러분과 동경대학교 관계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개인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다는 점과 의견을 위주로 서술하겠습니다.

0. 가기 앞서서

우선 가기 앞서서 준비해야 할 것들은 기본적인 챙겨야 할 것 들은 생략하고 중요한 것 위주로 설명하면, 본인 서명용 도장이 중요합니다. 여기서는 인감(印鑑)이라고 해서 우리나라에서 민증만큼 자신을 증명하는데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미리 준비해서 가는것이 좋습니다. 여기서는 가격이 좀 있는 편이어서 한국에서 맞추는 것이 좀 더 싸게 맞출 수 있습니다. 주의점으로는 도장이 한자로 되어있는 것으로 준비해주시면 좋습니다. 기숙사의 경우 기숙사의 위치에 주의하여 신청하시고, 신청하실때 이블렌탈서비스가 있기 때문에 기숙사에 살게 되신 분들의 경우 굳이 침구류는 가져가거나 현지에서 사실 필요는 없으실 듯 합니다. 또한 이곳의 전원 규격은 110V 이므로, 플러그 어댑터를 몇 개를 사전에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혹시 부족한 경우 돈키호테나 아키하바라 전자상가 등에서 추가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OICE 신청의 경우에는 사전에 미리미리하시면 큰 문제 없이 진행하실수 있으며 모르는 점이 있으면 바로바로 메일을 보내 문의해주면 빠르게 답장이 옵니다. 혼자서 끙끙 앓는 것 보단 모르는게 있으면 사소한 부분도 연락해서 해결하는게 나중에 뒤탈이 없습니다. 또한 OICE 에서 제일 중요한게 지도교수를 선정하는 부분인데, 지도교수님이 선정이 잘 되지 않으면 신청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첫 교수님 거절당하고 두번째 교수님께서서 OK 가 나서 지금의 지도교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동경대에서는 학점도 학점이지만, 대학 자체가 연구 중심의 학교이기 때문에 아마도 처음에 대학에 오시면 연구실에서 연구테마부터 선정하고 학업과 병행하여 연구도 가능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느정도 하는지는 개인차나 연구실마다 다르겠지만, 연구하는 경험을 쌓고 싶으시다면 적극적으로 참여 할 수도 있고, 대학원과 취직을 고민하고 있으신 분들이 오시게 된다면 대학원에 대한 경험을 쌓으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 됩니다.

일본어의 경우 할 줄 모르시더라도 크게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영어로만 대화가 가능하시다 하셔도 크게 생활적인 면에서는 큰 문제없이 지내실 수 있습니다. 물론 학교에서는 N1 정도의 일어를 요구하고 또한 일어를 하실 수 있으면 더욱 생활하는데 복잡함 없이 지내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업을 듣는것으로 가면 조금 복잡한 문제가 되는데, 공대의 경우 영어로 된 수업이 많이 있지는 않아 수업 선택의 폭이 많이 좁아지는데, 그런 의미에서 일본어 공부를 하시고 오신다면 동경대에서의 들을 수 있는 수업의 폭이 크게 넓어 질 것입니다. 또한 동경대의 한학기 한 학점당 13 시간을 듣습니다. 동경대 교환학생에 관심있으신 분은 이점에 유의해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1. 일본에서

기본적으로 OICE 측에서 유학생에게 멘토를 붙여 줍니다. 기본적으로 궁금한 사항이나 필요한 것이 있으면 멘토를 통해 상담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음식의 경우 일반적인 일식에 익숙하신 분들이라면 크게 문제없이 지내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식문화가 어느정도 비슷한 아시아권이라서 다른 지역으로 가는 것에 비하면 어느정도 적응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짧게 걸릴 것으로 생각합니다. 필요한 물품의 경우 근처 돈키호테나 다이소등에 가시면 대다수의 물품은 사실 수 있습니다. 근처에 약국이 있는 경우 약국에서 일반적인 상비약은 물론이고 세면용품, 간단한 식품등도 팔고 있습니다. 돈키호테나 다이소등이 먼 곳에 거주하신다면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기숙사의 경우에는 유학생을 위한 파티도 많이 개최하는 편이고, 같은 국적의 사람들끼리 교류를 하는 경우도 꽤 많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유학까지 와서 같은 국적 사람들끼리 굳이 어울려야 하나 라는 생각을 하여 따로 찾아보진 않았지만 혹시 외롭다고 느끼신다면 찾아보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입니다.

이곳에서는 카드 보다는 현금으로 결제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기본적으로 편의점에서 비자나 마스터 카드의 경우 현금을 뺐을 수 있으며 그 이외에도 찾아보시면 여러 은행에서 뺐을 수 있기 때문에(대표적으로 JP POST) 사전에 미리 현금을 뺐을 장소를 알아 두시면 현금이 없어서 곤란한 일을 겪는 일이 줄어드실 겁니다. 또한 일본에서 쓰는 교통카드(Suica 또는 PASMO)의 경우 역앞의 티켓 구매소에서 구매하실수 있는데, 이 교통카드의 경우 현금대신 결제 할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현금을 들고다니기 불편한경우 이 교통카드를 이용해서 편하게 결제 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이 학교를 등교하는데 멀리 떨어져 있어 전철을 이용할 경우 정기권을 구매해서 조금 더 싸게 다닐 수 있습니다. 학생증을 발급할 때 같이 부탁하면 정기권증명서를 발급해주기 때문에 필요하신 사람은 사전에 미리 이야기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2. 수업에 관해서

수업의 경우 위에서 말했듯이 일본어로 된 수업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공대수업에 한해서만 수강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기회에 다른 학과의 수업을 듣고싶은 분이 있으셨다면 아쉽게도 들으실 수 없습니다. 그래도 학과별로 열리는 수업 뿐만 아니라 우리학교 처럼 공과대학에서 개최하는 수업이 몇개 있습니다. 이번 학기의 경우 공과대학에 경제학수업이 있었기 때문에 공대수업에 한해서였지만 경제학 수업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학기에 영어로 된 수업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전부 일어로 된 수업만 들었습니다만, 시험이나 숙제의 경우 사전에 교수님과 상담해서 영어로 제출해도 되는지 여부를 물어보았고 모든 교수님께서 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다만 테스트의 경우 따로 영어 문제지를 준비해주는 것이 아니어서 일어로 된 문제지를 읽고 영어로 답안을 작성했습니다.

수강신청의 경우 개강을 하고 나서 신청을 받고, 수강인원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맘에드시는 수업을 찾아서 우선 들어본 뒤 맘에들면 그대로 신청하거나, 아니면 취소하실수 있습니다. 참고로 수업의 경우 지도교수님이나 연구실에 따라서 제한이 있을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점에 있어서는 멘토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유학생 전용으로 별도의 일본어 수업이 존재하며 여기에선 다른 나라에서 온 유학생들과 교류도 하고 일본어 실력도 같이 향상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학점도 같이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듣는 것을 추천합니다.

수업시간의 경우 한 교시가 1 시간 45 분으로 되어 있어 기본적으로 2 학점이라고 하면 일주일에 한번 한 교시 수업을 듣는 방식입니다. 1 학점의 경우 한교시를 13 주중 절반만 듣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3. 기타

학교의 식당의 경우 중앙 식당을 가장 많이 이용 할 것 인데, 싸게는 300 엔부터 뷔페식 까지 있는 폭넓은 식단을 자랑합니다. 적어도 메뉴가 같아서 질리는 일은 없으실 겁니다. 교내에 있는 편의점은 주로 로손이며 공과 대학 근처에는 일반 로손과 로손 100 이 같이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내부에 서브웨이나 스타벅스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 아카몬 근처에 시루카페(Shiru Café)라는 곳이 있는데, 유학생들에게 취업 정보를 제공하면서 커피도 같이 제공합니다. 유학생 한정으로 음료가 공짜이고 기업 설명회 미팅도 간간히 하므로 관심이 있는 유학생 분들은 카페를 방문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가을학기는 10 월부터 1 월이기 때문에 출국을 조금 늦게 했습니다. 출국까지 조금의 여유가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전화로 회화연습하는 프로그램을 했습니다. 덕분에 의사소통 생활하는데 있어서 크게 불편함은 없었습니다. 여가활동이나 여행의 경우 관심있게 찾아보시면 관광프로그램이 꽤 있고 휴일도 꽤 있기 때문에 맞춰서 진행하시면 다양한 경험을 하 실 수 있습니다. 이번년도에는 특히 금요일이나 월요일에 긴 휴일이 많이 있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다양하게 돌아다닐 기회가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또한 학교측에서도 유학생을 대상으로 여러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때문에 학업에 지장이 없을 정도라면 충분히 좋은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학교 캠퍼스가 혼고, 코바마, 카시와 등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 혼고 캠퍼스랑 대략 한시간 거리에 있는 카시와 캠퍼스(위치가 도쿄에 있지않고 치바에 있습니다.)에서 생활 했으며 양쪽의 캠퍼스를 둘다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또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있는 연구실에서 연구 테마를 정하고 연구를 어느 정도 진행하였고 학회제안도 받았습니다. 이 글을 보고 동경대에 흥미를 갖는 분들은 지도교수님을 선정할 때 교수님이 진행하고 있는 연구에 관해서도 조금 조사해 보고 자신이 관심있거나 자신있는 분야에 연구에 도전하는 것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